

2024년 9월 15일 “(침례식)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용서의 기쁨으로”(골 2:12-13)

오늘은 침례식의 의미와 성도가 얻은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침례식의 두 단계

(1) 물에 잠그다 (v.12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침례 받는 사람은 자기의 옛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로 물 속에 잠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이 죽음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2) 물에서 나오다 (v.12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

그 다음, 물에서 나오는 행위가 따릅니다. 죽으신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 새생명의 특징: 죄의 용서(v.13)

(1)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에 상응하는 대가(또는 형벌)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제는 성도 안에도 남아 있는 죄성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사람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2)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십니다.

이 때 우리는 뭔가를 잘 해내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라는 상징적 행동의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삶의 힘이 되어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침례식에서 물에 잠기는 것과 물에서 나오는 것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신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나의 시각의 초점은 무엇일까요?